



<도서관 소개>

서울 국제학교 도서관

유 소 영
서울 국제학교 사서교사

머 리 말

서울국제학교(Seoul International School;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4-1)는—이하 SIS로 칭한다—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 자제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단일국가 국민교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SIS의 교육현장에 보면 세계사회 속에 개인의 위치를 자각하고 급변하는 사회와 개인이 처하고 있는 이질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우며 아울러 모국의 문화유산과 다른 국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시킨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SIS는 원래 한국이 세계사회와 교류하고 교제하므로써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한국속에 국제 사회를 배경으로 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에서는 예상되지 않는 봉사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필자가 요청받은 원고의 내용은 SIS 도서관의 실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편의상 1. 이용자의 성격 2. 자료의 수입과 정리 3. 자료의 운용 4. 도서관 이용교육 5. 도서관 홍보활동 및 기타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이용자의 성격

SIS는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 자제(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포함)들을 유치원전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SIS 도서관은 만 삼세의 어린 아이로부터 곧 성인이 될 준비를 거의 다 갖추고 있는 학생들 까지를 그 봉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외에 봉사대상으로는 교사와 교직원 및 학부모들인데 교사에 대한 봉사는 거의가 학생지도와 교과과정을 돕는 봉사이며 순전한 교사개인의 흥미에 응하는 도서관 활동은 매우 소극적이다. 교직원 및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두고 있는 봉사 대상자는 아니다. SIS 도서관의 이용자는 이와같이 이용자의

연령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도서관보다 다양하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전교생 약 250명을 삼사세의 아기고실로부터 고등학교 삼학년까지 14학년으로 나누면 각 연령층의 이용자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SIS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이용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서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각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현재 23개국)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영어를 일상용어로 쓰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70%를 이루고 있으나 영어가 외국어이면서 이 외국어로 공부를 해야하고 외국어로 된 자료만이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의 성격은 SIS 도서관의 자료구성, 정리, 운영등 제반 업무에 그방향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자료의 수입과 정리

다음으로는 이상과 같은 봉사 대상자를 놓고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수입 정리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SIS 도서관은 60평의 특 트인 방 하나를 가지고 서가의 배열을 이용하여 크게 삼 부분으로 쓰고 있다. 정기간행물 및 참고자료 부분, 국민학교 어린이용자료부분, 중고등학교 학생용 자료부분이 그것이다. 유치원전 과정과 유치원 과정의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들은 국민학교 자료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좌석은 장방형의 탁자와 높낮이가 다른 구형 테이블 및 저학년의 어린이를 위한 다섯평 넓이의 양탄자를 구비하고 있다. 서가도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겸용하고 있다. 방의 구분이나 테이블의 높낮이, 서가의 높이 등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를 고려한 것이다.

SIS 도서관은 설립의 역사가 짧고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학교도서관이 구비해야할 기본도서를 완전히 구비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관례로 도서선택

의 비중은 자연히 기본도서의 확충작업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서선택에서 크게 고려하는 것은 교사들의 요구이다. 교사들은 평상시에 필요한 자료의 주제를 말하거나 필요한 도서의 주제를 말하거나 필요한 도서의 서명을 가져다 준다. 또 해마다 다음 학년도에 대비하여 교과서, 부교재 및 기타 학습자료를 점검하고 새로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을 리스트로 작성하는데 이러한 시기에 열리는 교사회의에서 도서선택에 유념해야 할 자료를 파악한다. 도서선택의 도구는 School Library Journal의 서평난과 Standard Catalog for High School Libraries, SIS가 교과서와 부교재를 구입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도서관 자료를 위한 신간도서목록을 주로 이용하여 구입에 필요한 서지사항을 리스트로 작성한다. 기타 서적상들이 적지않게 신간도서목록 혹은 개별서적의 광고문을 보내오는데 이러한 것도 오는대로 모아두고 참작한다.

구입은 중간상을 통하고 있다. 구입의 큰 문제는 애초의 주문리스트대로 도서가 도착하지 않는 것이다. 결판되었거나 기타의 이유로 거래상이 구하지 못한 것이 많고 대부분의 책값이 올라서 주문 당시의 계획과는 아주 다른 판도가 되는 것이다.

SIS 도서관의 장서 구성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기증도서이다. SIS 도서관은 1973년 학교 설립과 더불어 발족하여 그동안 기증도서 수입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소설류와 국민학생들의 일반도서 및 동화책들의 반 이상이 기증된 것이다. 일본에 있던 한 의국인 국민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그 도서관을 몽땅 들여 온바도 있고 그 외에 한미재단 개인장서 등에서도 기증되었다. 한국관계자료는 국제문화협회와 문화공보부에서 기증한 것이 많다.

정기간행물의 선택은 매우 신중을 요한다. 어떤 잡지는 학교도서관에 필히 있어야 하는 것이되 전혀 이용이 안되는 것이 있다. 그렇다고 매양 헛손잡지나 오락위주의 스포츠 잡지로 일관 할 수도 없다. 이 문제는 양쪽을 반반씩 백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재 4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미국에서 주문하고 있으며 기타 국내외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는 것을 합하면 60여종이 된다. 미국에 주문한 잡지는 제 때보다 두달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상례이며 도착하지 않는 것이 많다. 이런 것은 일정 기간후에 독촉 편지를 내어 늦게라도 전본이된 권호수를 채우도록 노력한다.

SIS 도서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너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도서류가 주종이다. 그외에 팜프렛, 리후렛, 신문클리핑을 모은 버티칼 화일 및 필름과 필름 스트립이 있다. 장서수는 종이제본을 제외하고 약 오천권이다. D.D.C. 8th ed.과 Sears List of Subject

Headings 10th ed.를 쓰고 저자기호는 저자의 성의 첫 두 글자와 타이틀 컷트로 만들어 준다.

전체도서자료의 서가배열은 저학년을 위한 이야기책과 학습을 돕는 일반도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소설류와 일반도서의 네 종류로 하고 소설류 중에서도 탐정소설 과학소설은 따로 배열한다. 920에 속하는 전기류도 별치하고 있다. 물론 소설이나 저학년을 위한 그림책 이야기책은 분류하지 않고 저자순으로 배열한다. 또 분류기호를 주면서 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대동화, 전설, 우화, Fairy Tale 등 398에 속하는 것들이 있다.

SIS 도서관은 싼 값의 종이제본 된 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카이드목록을 만들지 않고 따로 배열한다. 청구기호를 몇가지의 색 테이프를 써서 소설, 동화, 미스터리 등등의 구분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고있다. 이 종이제본 된 작은 크기의 도서는 전혀 구입된바 없는 기증도서로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욕으로 돌아갈 때나 다른 임지로 떠날 때 기증하고 가기 때문이다. 이 자료 중에는 하드 바운드 도서를 보완하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고 특히 고전에 속하는 소설 회곡집 등이 많아서 중고등학생들의 문학 시간에 많이 이용된다.

SIS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별치도서는 외국어본 한국관계 자료이다. SIS가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인을 교육하는 기관이므로 주재하는 국가의 역사, 전통 풍속, 정치 경제, 사회 등에대한 일반적인 호기심 또는 의식적인 관심 및 교과과정 속에 있는 한국문화 한국어시간 등에 호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한국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서가배열이 매우 다양한 구획을 가지고 있다.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부분을 합치면 열개의 구획을 셀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이용자들의 경향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의 운용

SIS 도서관은 필름과 필름스트립을 제외한 전 자료를 완전 개가식으로 개방하고 있다.

국민학교 이하의 아동들은 일주일에 두번씩 도서관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대출과 반납을 하며 자유로히 책을 읽기도 한다. 도서관시간을 두는 것은 어려서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서이다. 공부라고 하면 교사의 지도아래 교과과정과 도서관자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대략의 도서관 이용규칙은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 2학년 이하는 한번에 한책씩 그 이상은 누

구나 두책씩 두주일간 대출할 수 있다. 예약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이상 대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1회에 여러책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시간에서 받은 과제물을 하려면 반드시 몇권의 도서를 동시에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참고도서 비도서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필름과 필름 스트립은 교사들이 교과과정에 쓰기 위하여 대출해감)연체료제도는 없으며 분실한 경우는 같은 도서를 가져오거나 대금을 변상해야 한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아홉시부터 하교시간 세시 이십분까지이다. 이 개관시간은 거의 전교생이 학교에서 먼 거리에 살고 있어서 학교빠스로 등교하고 하교하는 관계로 그외의 시간에는 아무도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정해진 시간이다.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에 관한 안내는 이상과같은 정도이다. 다음으로 도서관이 교실의 학습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활용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국민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은 개별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 외에 담임교사가 한번에 20—30권 혹은 그 이상의 책을 교실에 비치하기 위하여 대출해 간다. 이것은 교과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더욱 여러 방법으로 도모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포유동물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시기에 포유동물에 관한 자료들을 대출해 가서 돌려가며 읽고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그 중에도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담임교사들은 대개 그림이 많은 간단한 이야기책을 대출해 간다. 읽기와 듣기, 이해하기 숫자의 개념과약을 주로 하는 교과내용을 칠판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과 병행하여 재미난 그림과 이야기를 활용한다. 이 방법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이 흥미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각 교실에는 반드시 서가가 준비되어 있어서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과 보조교재들이 비치된다. 도서관 책과 보조교재들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진행되는 교과내용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또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실생활의 응용면이나 효과 등을 알게 하는 도구들이다.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도서관자료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나 현재 배우고 있는 주제에 관한 도서를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거나 대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민학교중에서는 4,5,6학년에서 흔히 택하고 있다.

국민학교 2학년까지는 도서관시간에 양탄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 자료는 풍부하므로 1년내 다른 것을 읽어 줄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귀에 익은 재미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그 때마다 새롭게 즐

거워하는 동화도 많다. 이상으로 국민학교 수준에서의 도서관자료와 교과과정과의 연관을 설명하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협조는 보다 개별적이고 다양한 봉사를 요한다. 중학교 과정 7,8학년과 고등학교 과정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학점제로 누구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20학점씩 이수하여야 졸업한다. 저학년 일수록 필수과목이 많고 졸업반에 가까울 수록 선택과목이 많다. 따라서 개개의 학생은 같은 학년끼리도 다른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하고 있다.

각각의 학과목은 각 학과 교실 서가에 부교재들을 비치하고 있다. 이 부교재의 복본이 많을 경우는 도서관에서도 비치하고 활용시킨다. 교과학습과 도서관자료 활용과의 유대는 주로 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시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열리는 교사회의 때나 또는 기회가 닿는대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필요한 시기를 미리 알려준다.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도서관에서는 그 주제에 관한 자료를 목록을 통하여 혹은 직접 서가에 가서 체크하고 대출된 것은 대출기간이 지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될수 있는 대로 반납시킨다. 학생들은 담당교사가 미리 알려준 시간에 그 반의 전체학생이 혹은 일부 학생이 도서관으로 밀려온다. 이때 도서관에서는 미리 그들의 필요를 체크해 놓았으므로 빠르고 쉽게 봉사할 수 있다.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학생들을 보내는 교사는 없다. 그러므로 다른 학과의 도서관 이용시간이나 국민학교의 도서관 시간과 겹치는 사례가 없게 된다.

교사에 따라서는 지정도서제도를 애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는 본 도서관 도서와 아울러 교사 개인의 것이나 미군 내에 있는 SAC Library에서 필요한 책을 빌려다가 본 도서관에 지정해 놓고 이용시키기도 한다. 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번씩 수강하는 학생 전체를 도서관에 보내어 미리 학기 초에 배부된 Reading list에 정해진 책을 읽고 대출하게 하기도 한다. 어떤 과목은 정기간행물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업시간은 모두 교사가 도서관에 잠깐 와서 둘러 보고 가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완전히 학생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과과정을 돕는 도서관 활동의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주제에 관한 서지를 작성하여 그 과목 담당교사 내지는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이용할 수 있으니 마음이 기쁘다.

SIS는 학교명이 “국제”라는 글자를 쓰고 있고 교육 목적에 국제사회의 배경을 의식하게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으면서도 교육방식의 증추는 미국식이다. 경영자가 미국인이고 교사의 대부분이 미국인이다.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학부교육부터 미국에서 받은 사람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내용도 미국이라는 주제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국어와 역사 지리를 필수로 가르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도서관의 자료내용도 미국에 관한 것이 많고 사서교사는 영미문학 및 미국의 역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하여 밝히 알아야 참고봉사에 응하기가 쉽다. 또 아동문학 청소년 문학에 해박할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문학을 다룬 좋은 서평지를 계속 구독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SIS 도서관의 이용자와 자료의 종류 수입, 정리 및 운용에 관한 실태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학문의 도장인 대학에 갔을 때 방대한 대학도서관의 규모와 시스템에 직면하여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고르고 이용할 줄 알도록 하는 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 도서관 이용교육

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9월 초에 개학을 하면 첫 도서관시간을 도서관 이용의 규칙이라든가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도서관 선생님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해야 한다든지 또 카아드목록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등의 기본이 되는 지식을 일러주는 Orientation으로 보낸다. 이 Orientation은 해마다 반복하되 그 때마다 각학년의 수준에 맞춰 설명하고 그 설명의 내용은 학기가 지나는 동안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익히게 된다.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은 원하는 책을 서가에서 뽑아서 도서관카아드에 이름을 쓰고 대출해가며 반납 일자리를 지켜 대출도서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 학교책을 아끼고 낙서를 하거나 파손하면 안된다는 것 등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이 되는 자세나 예의 같은 것을 도서관 시간을 통하여 실천해 가면서 배운다.

3,4학년에 가면 어린이들은 열람용카아드함에서 카아드목록을 찾아보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스스로 발견하는 습관을 익히게 한다. 그러는 동안 어린이들은 저자명, 서명, 주제명 카아드에 대한 개념이 서게 된다.

5,6학년에서는 본격적으로 Dewey Decimal System의 내용과 열람카아드의 이용법 색인에 관한 지식등을 배운다. 특히 색인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등의 지식은 익숙해지도록 연습시켜야

한다. 중학교 이상에서는 공부 방식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중등학교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있게 되므로 국민학생들과 같이 단체적으로 도서관 이용지도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의 경험이 부족한 새학생들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 학과목이나 교사에 따라서는 논문의 형식을 갖춘 레포트를 작성하는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과제로 받은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문헌에 접근하게 하는 일반적인 참고봉사만이 아니라 인용문을 쓰는 법 인용주기, 참고서의 서지를 쓰는법 등을 가르친다. 이러한 훈련의 반복은 대학에 진학하여 레포트나 논문을 쓸 때 당황하지 않고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5. 도서관 홍보활동 및 기타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매력있는 장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벽면에 빈틈없이 무엇인가 걸거나 붙이거나 장식한다. 지도, 그림, 사진, 지구의, 새나 동물표본, 기타 장식품을 쓴다 북자켓트를 이용한 장식은 물론이다. 이러한 장식은 한달에 한번정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절기에 맞추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거나 천정에 줄을 매고 종이 고리를 주렁 주렁 다는것 심지어 유리창이나 출입문같은데도 색종이로 화려하게 꾸미어 눈을 끌게 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Snoopy 같은 그림을 그려 붙이는 것도 효과 있다. 가령 그것이 도서관에 소장한 어떤 특정자료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도 관계없다. 학생들의 눈을 끌고 즐거움을 주고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면 그런대로 도서관의 홍보활동은 이루어진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변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앞으로 오는 새학기에는 도서관 이용안내서를 발행할 예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 주재하면서 영어를 쓰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모이는 KITE (Korean Involvement Through Education) 모임이다. 이 모임은 지난 삼월 초에 제 2회 대회를 SIS에서 가진 바 있다. 이러한 시기는 다른 주제별 분과와 마찬가지로 사서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이 당면한 사정과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해결책을 토의하는 좋은 기회이다. 바라기는 각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가서 그 학교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도서관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상호대차제도의 아이디어가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